

광주·전남 창업활동 가장 활발

작년 신설법인 수 3,192개...5년래 최고 건설업체도 불황 불구 800개 새로 생겨

불황과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창업활동이 최근 5년래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심리 회복과 나주 혁신도시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비스업종과 건설업종의 창업이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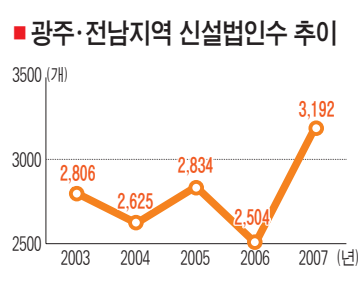
하지만 2억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도소매업 창업이 주류를 이뤘다.

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신설법인 수는 3천192개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에 비해 27.5%(688개) 늘어

난 것으로, 지난 2002년(3천345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신설법인이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창업 자본이나 기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창업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 소비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창업활동 증가에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광주·전남은 지난해 1천599개의 서비스업종 법인이 신설돼 전년(1천314개)보다 21.7%(285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도소매업은 660개로, 전년보다 47%(211개)나 늘면서 불황 속에서도 창업에 대한 의욕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지방 건설경기 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난해 793개가 새로 문을 열었다.

이는 전년(568개)보다 39.6%(225개) 증가한 것으로, 나주 혁신도시 착공 및 여수엑스포 유치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다

만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은 전년보다 3.1%(7개) 감소하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은 또 창업 법인의 규모가 여전히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전남 신설법인의 자본 규모는 5천만원 미만인 46.7%(1천47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억5천만원 미만 39.0%(1천246개) ▲5억원 미만 8.9%(285개) ▲10억원 미만 4.4%(139개) ▲10억원 이상 1.6%(50개) 등이었다.

한편 광주·전남의 신설법인인은 2002년(3천345개)을 정점으로 2003년(2천806개), 2004년(2천624개)로 감소했으나, 2005년(2천834개), 2006년(2천504개)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재래시장 활성화 1,800억 지원

광주·전남중기청 내달까지 신청·접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준근)은 재래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시설개선, 경영현대화 지원)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국비 1천80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지원센터·전국상인연합회를 통해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정부는 그간 유통시장 개방으로 대형유통점과 재래시장간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2002년부터 재래시장 지원에 착수해 2004년부터 지원체계를 갖추고 본격 지원했다.

그 결과 시설을 종합적으로 고친 시장의 경우 7.6%의 매출이 증가했고, 빈 점포율도 3.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추진 3년차를 맞아 ▲시설 현대화 ▲상권 활성화 ▲경영혁신 ▲시장관리 선진화 등 4대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업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올해 우선 노후시설 개량과 고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 현대화에 1천375억원을 지원한다.

시장별 특성을 살린 시장현대화를 위해 229개 시장의 주차장(54건), 야케이드(78건), 편의시설(83건), 진입로(10건)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구매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배송센터와 공동물류창고 등 공동시설(15곳)을 확충한다.

특히 나주 등 지방공설시장 중 유통기능이 강한 곳 5곳에 대해서는 냉·난방 시설, 주차장 등 쇼핑환경을

개선하는 현대식 마트로의 재개발을 추진한다.

또 재래시장·상점가·상업지역을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촉진사업에 152억원을 투입한다.

경영혁신과 공동사업을 통해 활력 있는 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176억원을 지원하며, 시장관리와 점포경영 선진화를 통해 매력있는 시장 조성사업에 5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재래시장 지원기능 강화와 품질제고에 47억원이 지원된다.

재래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 상점가는 시·군·구 및 시·도의 추천을 거쳐 2월20일까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시장경영지원센터(www.sijang.or.kr), 전국상인연합회(www.ukma.or.kr)에 신청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토공, 광산 선운지구 15만㎡ 신규 공급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선운지구 공동주택 용적 7필지(15만㎡)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부지는 위치에 따라 ㎡당 가치가 64만~74만원이며, 매입 희망자는 오는 10월31일까지 토공 광주전남본부 방문해 계약을 하면 된다.

선운지구는 광산구 선암동 일원에 62만2천㎡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10년 완공 예정이다. 어등산과 황룡강을 끼고 있고, 인근에 송정역과 광주공항,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지나는 등 교통 여건도 좋다. 문의 062-945-1295.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정몽규(오른쪽) 현대·기아차 회장이 지난 2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현대차 인도 제 2공장(첸나이)의 생산라인을 방문. 현지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

KT&G 광주창 해외이전설

본사 "사실 무근" 해명 속 논란 일어

이전설 직원 등 연 1천억 손실 우려

지난주 불거진 KT&G 광주연초제조창(광주창)의 해외이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광주창의 이전논란은 KT&G 전남본부 관계자가 '최근 지역 등 국내에서의 담배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언젠가는 해외이전을 준비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언급하면서 제기됐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광주창이 이전할 경우 제조창내 300여명과 협력업체까지 합쳐 600여명의 종사자 및 지

역 담배농가와 함께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직간접 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KT&G 전남본부 측은 "광주연초제조창 폐쇄 이야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KT&G 본사 허철호 홍보과장은 "광주연초제조창 폐쇄는 사실이 아니며 검토한 적 조차 없다"고 밝히고 "터키공장 가동이 광주공장 폐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기아 1월 12만대 판매... 전년동기비 13% 증가

기아차는 지난 1월 한달간 경차 모닝의 판매확대,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8% 증가한 12만357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내수에서는 2만2천37대를 판매해 작년 1월에 비해 4.2% 줄었지만, 수출에서는 작년 1월보다 17.5% 늘어 9만1천8천320대를 팔았다.

기아차는 "지난 1월 초 출시된 모닝과 모하비 등 신모델 판매 호조로 1월 국내시장 점유율은 22.6%를 기록, 작

년 연간 점유율 22.3%에 비해 0.3% 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또 오피러스는 현대차의 고급 세단 제네시스의 출시에도 불구하고 1월 한달간 1천306대가 팔려 20개월 연속 국내 고급 대형차부문을 1위 자리를 이어갔다.

지난달 3일 출시된 기아차의 플래그십 SUV인 모하비도 1천278대 판매됐으며, 지난 한달간 2천453대의 계약고를 올렸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밥쌀용 수입쌀

14일 첫 공매

올해 밥쌀용 수입쌀이 지난해보다 한달 정도 빠른 오는 14일께 첫 공매될 예정이다.

공매예정 쌀은 지난해와 동일한 중국산으로, 1등급 1천758t이 지난달 18일 국내항에 도착해 식품검사·식품검역 등 검사를 거치고 있다. 태국산 1등급 1천t도 지난달 하순 국내에 도착해 검사 중이고, 미국산 1등급 1천400t은 이달 하순에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올해 반입될 밥쌀용 수입쌀은 4만7천28t으로 지난해의 3만4천429t보다 39.2% 증가했고, 2006년의 2만1천564t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었다.

원산지별로는 중국산 2만9천62t, 미국산 1만6천302t, 태국산 2천t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중국산 6천611t, 미국산 5천888t, 태국산 1천t이 각각 증가했다. 미국산은 1등급 70%, 3등급 30%이고, 중국산은 1·3등급이 각각 50%, 태국산은 전량 1등급으로 도입된다.

/이종태기자 jtle@r



'새뱃돈 봉투' 드립니다

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설날을 맞아 '새뱃돈 봉투' 40만매를 각 영업점 창구 및 365열린코너에서 배포한다. 이 봉투에는 색동저고리를 입은 아이들을 등장시켜 풍성한 설명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광은행 제9공>

지역 제조업 가동률 소폭 하락

작년 12월중 0.9%P 내려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이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중소기업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2007년 12월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0.9% 포인트 떨어졌다.

광주지역 68.1%, 전남지역 73.2%로 전월보다 각각 2.3% 포인트, 0.1%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기업의 평균가동률이 76.7%를 기록한 반면 소기업은 69.6%를 7.1% 포인트 뒷걸음질쳤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제조업(81.1%)만이 정상가동률 80%를 웃돌았으며, 목재·나무제품(65.0%), 조립금속제품(68.7%), 고무·플라스틱제품(68.8%) 등은 60%대의 낮은 가동률을 보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는 최근 내수부족과 목재·금속·유류 등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채산성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가동시간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